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05.(목) 배포 2026. 11. 05.(목) 16:00

26-27절기 가금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 및 감시 강화

- 발생 가금농장에 현장 대응요원 파견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지속 점검
- 현장대응시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와 증상 발생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1월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되어 살처분이 시행된 경기 연천군 소재 **가금농장에 현장 대응요원을 파견**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실시**하였다.

*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는 주로 닭, 오리 등 조류에 감염되지만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포유동물에서도 감염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인체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음

26-27절기 야생 조류와 야생 포유류인 삵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으나 **가금류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인체감염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

현장에 파견된 대응요원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개인보호구 착용,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였다. 현재까지 발생 농장 종사자 중 **의심 증상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AI 인체감염증 잠복기를 고려하여 노출 후 10일간 **고위험군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국외에서는 호흡기 증상 없이 결막충혈 등 경미한 안과증상만 나타난 인체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살처분 등 작업 후 **10일 이내 발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나 결막충혈 등 안과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질병관리청은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가금류 살처분 시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병행하는 등 **동물에서 AI가 발생한 단계부터 선제적인 인체감염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항바이러스제 처방, 격리 등의 관리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중국, 캄보디아 등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문자에게 **▲감염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귀국 후에는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발생 즉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단계에서 잠복기 내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진이 해외 여행력을 확인**(DUR-ITS)할 수 있도록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

* 2026년 4분기 동물인플루엔자(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 : 미국 일부 지역(미시간주, 워싱턴주), 방글라데시, 브라질, 중국 일부 지역(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안휘성, 윈난성, 장시성, 장쑤성, 톈진시, 후난성, 후베이성), 캄보디아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국외에서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라며,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의 현장 작업자 등 고위험군의 인체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개요
2.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수칙
3.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관련 Q&A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담당 부서 <총괄>	감염병위기관리국 신종감염병대응과	책임자	과 장	민유정 (043-719-9100)
		담당자	역학조사관	이상은 (043-719-9120)
			역학조사관	장민정 (043-719-9132)
담당 부서 <협조>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승은 (043-719-9200)
		담당자	보건연구관	김자은 (043-719-9210)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	책임자	과 장	김종희 (02-361-5720)
		담당자	보건연구관	이지희 (02-361-5766)
			역학조사관	김현정 (02-361-5739)

붙임 1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개요

정의	▪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바이러스의 인체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병 - 표면 단백질(Hemagglutinin(HA), Neuraminidase(NA))에 따라 다양한 아형 조합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닭, 오리, 야생조류, 고양이, 젖소 등을 감염시키며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으나, 최근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간헐적으로 인체감염이 발생되고 있음(H5N1, H7N9, H5N6, H9N2 등)	
질병분류	▪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질병코드: J09)	
병원체	▪ 병원체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Avian Influenza A virus) - 주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속함. - AI 바이러스는 다양한 아형(subtype)이 있으며, 바이러스 표면단백질 조합에 따라 다양한 바이러스 존재 (HA 18종 X NA 11종=198가지 아형 조합 가능)	
병원소	▪ 사람, 가금류, 야생조류, 젖소 등	
감염경로	▪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닭, 오리 등), 야생조류, 그 외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 가능 ▪ 감염된 동물의 배설물·분비물·부산물 및 이에 오염된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 가능 ▪ 매우 드물게 사람 간의 전파가 의심되는 사례가 보고 ▪ 향후 바이러스의 변이 등을 통해 사람 간의 전파가 용이해질 가능성이 있음	
잠복기	▪ 2-7일 (최대 10일)	
증상	▪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가능 ▪ 결막충혈, 결막염, 안구통증, 안구불편감 등 안과 증상이 동반 가능하고 최근 호흡기 증상 없이 안과 증상만 나타나기도 함 ▪ 폐렴·급성호흡부전 등 중증 호흡기 질환도 발생 가능 ▪ 구역·구토·설사의 소화기 증상과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기도 함	
치명률	▪ H5N1 : 약 48%	
진단	▪ 배양검사 : 검체(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인두흡인물, 가래, 기관지흡인물, 기관지폐포세척액, 안점막도말)에서 Avian influenza virus 분리 ▪ 항체검출검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유전자검출검사 : 검체(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인두흡인물, 가래, 기관지흡인물, 기관지폐포세척액, 안점막도말)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치료	▪ 항바이러스제 투여 ▪ 중증환자 치료 - 인공호흡기, 침습적·비침습적 양압환기, 체외막산소화장치	
예방	▪ 국내 상용화된 인체감염 예방 백신 없음 ▪ 일반적 예방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기침, 재채기할 때 옷소매를 이용하고 기침, 재채기 후 손위생 실시	
관리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환자관리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 격리병상에서 격리 치료·관리 ○ 항바이러스제 투여 ○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완료된 후 호흡기 검체 PCR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
	접촉자 관리	○ 대상 - (밀접접촉자)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회복까지 환자와 2미터 이내 또는 같은 공간에 상당 시간 함께 있었거나 환자가 감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 환자의 분비물에 직접 접촉한 사람 - (공동노출자) 환자가 노출된 위험 요인과 동일한 시간적 공간적 노출이 확인된 사람 ○ 감시 기간 중 증상 발생 시 역학조사 및 사례분류, 의사환자 검체채취 및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2 |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수칙(3종)**

① 살처분 참여자용 AI 인체감염 예방요령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에서 **살처분 참여자용 안내문**(14개 언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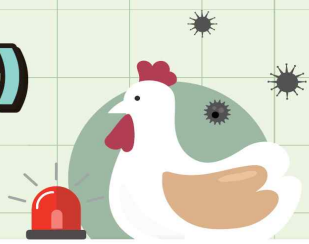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② 생활 속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수칙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에서 **인쇄용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수칙





손을 자주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AI 바이러스에 감염이나 오염된 동물, 부산물, 사체, 분변, 물건 등에 접촉하거나 접촉으로 오염된 손으로 **눈·코·입을 만졌을 때 감염**될 수 있고,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 등의 흡입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감염이나 오염이 의심되는 동물*, 부산물, 사체, 분변, 물건 등과 접촉하지 마십시오.

* 매년 가금류(닭, 오리 등)·야생조류, 최근 국내 고양이·삶과 미국 젖소 등에서 AI 감염 보고됨

① 불가피하게 동물이나 동물 사체 운반 등의 작업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십시오.

② 축산 농가, 생가금류 시장, 철새서식지 등의 장소에 **불필요한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하는 경우, 동물, 부산물, 사체, 분변, 물건 등과 **접촉을 피하고 방역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십시오.



닭고기 등 축산물은 충분히 익혀 먹고, 우유나 유제품은 살균 또는 멸균된 제품으로 섭취하십시오.



국내외 AI 발생시설 및 지역에서 동물과 직간접 접촉이나 AI 인체감염증 (의심)환자 접촉 후 10일 이내, 임상증상*이 발생하거나 아프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전화하여 안내받으세요.

*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두통, 호흡곤란, 결막충혈, 결막염, 안구통증, 안구불편감 등

증상 발생 시, 주변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기침예절* 준수,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통해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협조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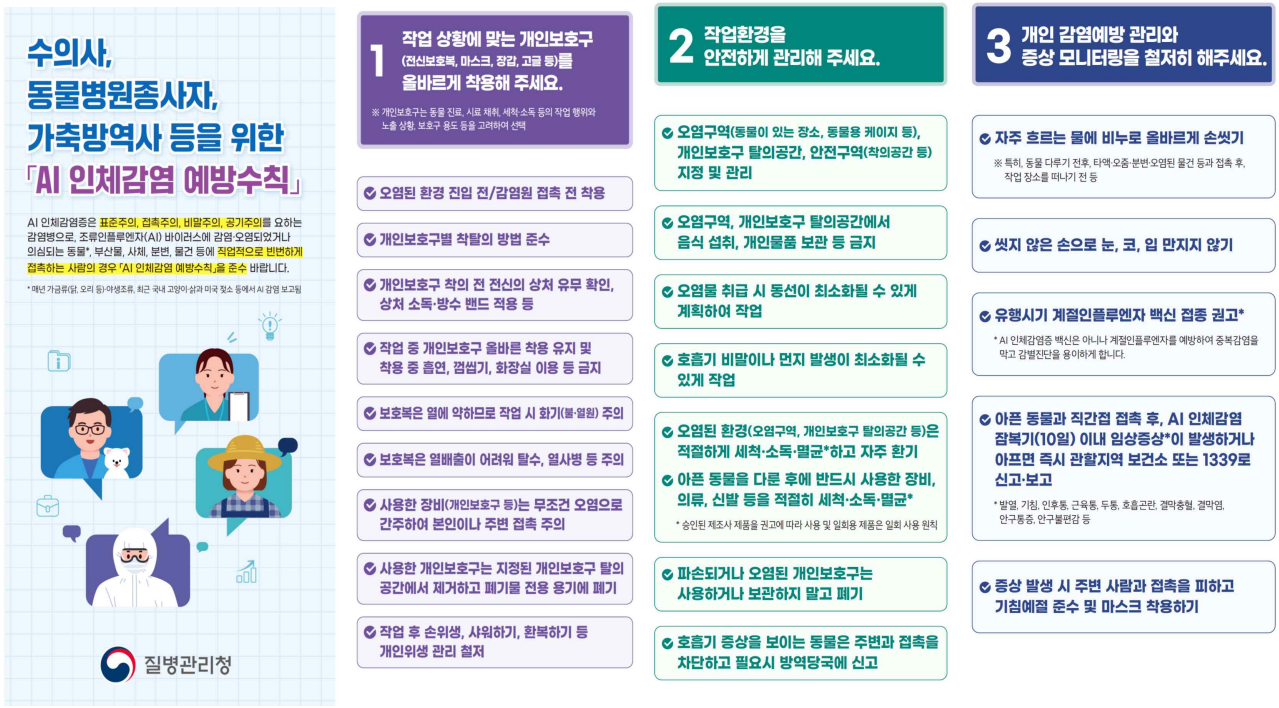
* 기침, 재채기 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이후 손 위생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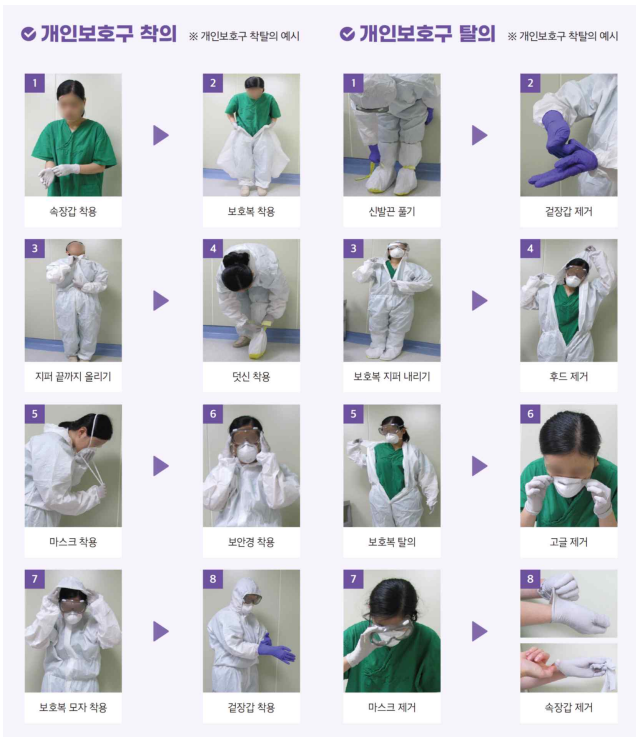
질병관리청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③ 수의사, 동물병원종사자, 가축방역사 등을 위한 AI 인체감염 예방수칙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에서 **인쇄용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3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관련 Q&A

1. AI(조류인플루엔자)란 무엇인가요?

○ AI(조류인플루엔자)는 닭·오리·칠면조, 철새 등 주로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입니다.

* AI는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되나, 이러한 분류는 조류에 대한 것으로 사람의 감염과는 직접 상관없는 분류입니다.

○ AI 인체감염증은 야생조류, 가금류 등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전파되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2. 우리나라에는 AI가 발생하여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킨 사례가 있나요?

○ 우리나라에서는 닭·오리 등 가금류에서 H5N1, H5N6 등 고병원성 AI가 유행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해외에서는 조류 등에 의한 인체감염 사례가 일부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안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AI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사람에게 전파되나요?

○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사체, 분변에 오염된 물건 등을 접촉한 손으로 눈·코·입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4. AI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 주로 발열·기침·인후통·근육통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이 발현되나,

○ 최근 호흡기 증상 없이 **결막충혈, 결막염, 안구통증, 안구불편감 등 안과 증상만** 나타난 경우도 보고되고, **폐렴·급성호흡부전 등 중증 호흡기 질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일부 구역,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과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기도 함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5.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H5 아형)는 사람에게 위험한가요?

○ 일반 국민은 야생조류, AI 발생 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AI 인체감염증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 하지만 AI에 감염된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AI 발생 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고병원성 AI 인체감염증 발생사례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6. AI 인체감염 치료제가 있나요?

○ AI 인체감염 시에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7. 생활 속에서 AI 인체감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손을 자주 씻고,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아픈 동물(야생조류, 가금류, 고양이 등)이나 동물의 사체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야생조류, 가금류, 길고양이*의 경우 직접 접촉이나 사체, 분변 등에 접촉을 가급적 피하십시오.

* AI 발생지역의 경우, 보다 각별한 주의 필요

8. AI 인체감염증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국내외 AI 발생시설 및 지역 등에서 동물과의 직간접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결막충혈, 결막염 안구통증, 안구불편감 등 관련 증상이 발생하거나 아프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또는 재채기 할 경우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이후 손위생 실시 바랍니다.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